



GLOBAL PARTNERS USA, INC

10582 Katella Ave., Anaheim, CA 92804 Tel. 714.774.9191 Fax. 714.774.9192

E-Mail: admin@gpusa.org yoonsnews@protonmail.com Homepage: www.gpusa.org

믿음의 한 걸음이 요단강을 가른다는 말씀이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6년 전의 일이지만 당시의 상황이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그때와 지금의 나는 같으면서 또 다른 나입니다. 지금은 요단강을 가를 그 한 걸음을 내딛을 믿음이 있는가? 젊을때는 유효했지만 나이들어 힘 빠지고 이 빠지면 유효하지 않은듯, 믿음에도 유통기한이 존재하는 듯 살지는 않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보지만 그것보다 아마도 건너야할 요단강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르겠고, 내게 남겨진 (시대적) 태스크/테스트는 건너는 것이 아닌 버티는 것이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에 대해 의구심이 생길때 16년전의 경험을 떠올려봅니다. 삶은 두터운 문제집같으나 모두 시절마다 허락된 은혜로 잘 버티고 계실 줄 믿어요.

지난 2월 낙태를 주제로 학부모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엄마들이 부끄러워 많이 참석하지 않을 것 같다는 선생님의 이야기처럼 평소보다 적은 7명만 참석했습니다. 세미나를 마치고 강사 선생님과 카를가치 선생님을 초대해 집에서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강사 선생님이 예수를 만나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97년에 서양 사역자가 운영하는 센터에서 영어를 배웠다. 사람들은 왜 외국인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곳에서 영어를 배우냐고 했다. 배움의 열망이 컸나 보다. 그곳에서는 행복했고 집에오면 우울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말에 반항했다. 그가 날 사랑하신다면 나는 왜 요모양 요꼴이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가? 그런 질문이 있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어느 집회에 참석하였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믿어졌다. 이 센터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 센터에 나오는 아이들 얼굴이 행복해 보입니다. 아이들이 언제, 어떤 과정과 경로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될까요. 내게 찾아오셨듯 그가 직접 이들을 찾아와 만나는 날 슬픔이라, 아픔이라 불리웠던 이 땅에서의 짐과 고뇌는 그를 더 사랑하게 되고 더 큰 기쁨과 환희를 경험하는 재료가 될 것이라 믿어집니다.

아내반에서 (4학년) 초코파이를 건네주고 막 나가려는 나를 아내가 불러세웠습니다. "여보 이리와봐. 애가 이 종이에 적힌 영어 다 읽을 줄 안다고 보여주겠다." "우리반 5학년 아이들보다 잘하네." '귀여워.' 잘했다고 칭찬해줬습니다. 더 과하게 칭찬해주고 싶었지만 옆에 앉은 부러움과 시기의 눈들을 의식해서 수위조절했습니다. "선생이 누구야? 좋은 선생을 두었나보네."

잠시 우리 센터에서 일하다가 결혼하면서 그만두게된 보현이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달에 저도 아프고 남편도 아파서 일을 못했어요. 그런데도 월세는 내야해요...."

센터에 돈 들어갈일은 자꾸 쌓이고 집행이 미뤄지고 해야할 일들을 나중으로 연기하고 있는 와중에 온 연락이라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오죽하면 우리한테 연락했을까..." 라는 아내의 말에 "당신이 좋으면 나도 좋아" 라고 답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런 결정을 내려준 아내와,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주머니는 쪼그라들었지만 마음은 더 넓어지고 따듯해졌습니다. 여유가 있을때 도움을 주는 것보다 가슴은 더 벅찼습니다. 세상의 아픔이라 불릴만한 것들 속에서 오히려 아름다운 것들이 발견됩니다.

잠들어있는 꼬마 아이를 엄마 품에서 아내 품으로 안아들었습니다. 아기가 평안하게 잠든 얼굴만큼이나 아이의 장래 삶도 평안하길 바랬습니다. 앞에 앉은 젊은 엄마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내 품에 안긴 아이보다 한두살 많아보여 물었더니 두 달 후면 4살 된다고 손가락을 펴보였습니다. 두 젊은 엄마 모두 무슬림 남편으로부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도 받고 결국은 아이들 데리고 이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이런 가정을 위해 기도가 나왔습니다.



드문 케이스가 아니라서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예배 시간에 계속 서럽게 울어대는 아이를 아무말 않고 가만히 안고 있는 20대의 엄마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궁금했습니다.

학부모 세미나에는 어머니들만 참석해서 특별히 아버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서너명이 참석한다 했고, 답하지 않았지만 몇 명 더 참석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히잡을 두른 10학년 수준의 아버지만 참석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로서 실패(?), 아쉬움, 기대, 감사의 경험등을 짧게 나눴습니다. 동역자 카스벡 목사가 주강사로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 나눴습니다. 네 명의 스태프에 참가자 한 명이었지만 세미나에 들인 시간, 노력, 재정이 아깝지 않았습니



방학을 앞두고 학부모들이 선물과 음식을 싸들고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키르기스 전통 복장을 준비해서 아내와 저에게 각각 입혀주며, “키르기스 며느리”, “키르기스 사위”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음식을 나누며 세집의 엄마가 말했습니다. “세집이 말도 없고 잘 웃지 않았는데 이곳 센터에 나온 이후로 아이가 말도 많이 하고 많이 웃고 행복해 보여요.” 다른 학부모도, “우리 아이들도 커서 당신들처럼 (사람들을 돕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다른 건 잘 몰라도 아이들이 예수를 알고 사랑하는 것에는 저희처럼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바로 얼마전에도 이유없이 학부모 방에서 탈퇴한 엄마와, 더이상 센터에 나오지 않겠다고 떠난 아이도 있었고, 내 종교를 묻는 아이에게 크리스찬이라 답했더니 수업에 나오지 않는 아이도 있어 마음이 무거웠는데 세집같은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을 돌려주고 있다는 사실에 이 길을 걸어갈 힘을 얻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한달간 소수의 아이들과 웹사이트 만드는 수업을 했습니다. 저와 IT 수업을 했던 아이들 가운데 잘 따라왔던 소수의 아이들만 추렸는데 막상 방학이 시작되니 일을 하거나 부모님 따라 타지방에 가게된 아이들이 생겨 더 적은 숫자만 참석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지난주에는 벡투르가 부모님 효도관광에 저희 부부도 초대해서 다섯 명이 잊지못할 여행을 다녀

왔습니다. 3,016미터 산정호수에서 1박을 하고 3,500 미터 위 계곡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서서 사방에 펼쳐진 봉우리들을 보며 주님의 창조에 경탄하고, 계곡을 따라 끝없이 펼쳐진 초원을 가로지르며 천산산맥의 심장을 관통하는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요새 저희 동네 자주 물과 전기가 끊기고, 집안에서 쥐도 12 마리 잡았고, 뒷뜰에는 또 물이 넘쳤고, 오늘 이곳은 영상 107도까지 올라갔지만 삶에는 여전히 감사할 이유들이 더 많습니다. 행복한 소식들로 또 편지드리겠습니다.

삼남매 엄마 이야기 (57)

올여름은 다섯 식구가 각자 자기의 일을 갖고 지내는 첫 여름입니다.

하람이 주영이도 풀타임 일을 시작하고, 막내 택함이도 풀타임으로 인턴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제가 첫 직장에서 뭔가 현실을 파악하고 다음 일을 찾았던 것처럼 아이들도 많은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힘들다는 얘길 할라치면 ‘힘드니까 너에게 돈 주는 거야. 재미있으면 돈 받겠지 디즈니랜드처럼!’ 이라고 말해줘서 ‘엄마는 여전하시구나’ ‘깨닫고 각자 열심히 살아내고 있습니다. 노동이 주는 고마움을 알고 바쁜 와중에 섬길 일들을 찾아내는 아이들이 우리 세대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꿈을 꾸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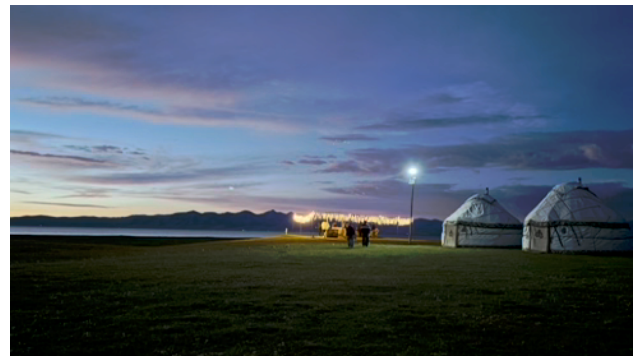
저희들은 키르에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기가 없거나 물이 안나오거나 혹은 둘 다 끊어지는 날들이 계속되는 바람에 동네 아줌마들이 뉴스프로그램에 고발하고 방송국에서 우리 동네를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썸머스쿨로 컴퓨터 강좌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전기나 물 걱정이 없었습니다. 수업할 때 컴퓨터를 편안히 사용하고, 간식을 mamong고 준비할 수 있게 물과 전기가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걸 불편한 날이 계속될수록 깨닫게 되어 썸머스쿨을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동네 들어오면서 만난 벡뚜르가 자기 부모님과 우리 부부를 초대해서 송쿨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투어가이드 아르바이트 하면서 가 보았던 좋은 곳에 부모님을 모시고 가고 싶을 때 우리 부부를 같이 초대해준 건 참 감사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하람이가 교통비를 지원해주었습니다.

벡뚜르가 준비한 숙소에 하람이가 지원해준 교통비로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지금 우리센터에 오는 꼬맹이들도 자라면서 이렇게 우리와 더 친밀해지고, 부모님들과 더 가까운 이웃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족이 되고, 아버지의 기업이 되고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런 날을 꿈꾸어봅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지만,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그 시간들.



기도해주세요

1. 좋은 성품과 실력을 겸비한 영어 교사를 보내주시길
2. 센터 뒤 수로에서 새어 들어오는 물을 막고, 땅을 50센티 파내고, 제초제를 뿌리고, 새 흙을 덮어야 잔디를 깔 수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을 시작할 수 있기를
3. 하람, 주영, 택함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길

후원안내

<미주>

Check를 GP회사로 보낼 경우

Pay to : (GP USA) 그리고 Memo 란에 (K14, 윤재웅, 현순)

GP회사주소 : 10582 Katella Ave. Anaheim CA 92804

또는,

www.Gpusa.org에 방문하셔서 오른쪽 위 메뉴의 GIVE 버튼 클릭,

2번 DONATE > 버튼 클릭후 인포메이션을 작성하시면됩니다.

Selected missionary는 "K14 화평, 회복"입니다.

GP회사Tel : 714-774-9191 (전화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

KEB하나은행 (구 외환은행) 990-090820-517 (예금주 : 윤재웅)